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소득분위별 생애주기 소득분포

성명재 (홍익대학교)

- 청년기에는 소득수준이 낮고,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소득이 증가하여 최고점(정점소득)에 도달한 다음, 장년기부터 생산성이 하락하여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노년기에는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역U자 형태의 생애소득 경로를 지닌다.
- 단기적으로 소득불균등도를 확대시키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세대간 연령차이다. 소득기간을 확장할수록 연령차이로 인한 소득불균등도는 축소된다(생애주기효과).
- 소득백분위수별 생애소득경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다가 소득 최고점을 찍은 후 다시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생애주기상 전자를 소득확장기, 후자를 소득수축기라고 한다.
- 소득백분위수가 높아질수록 생애소득의 정점소득 연령이 상승한다. 고소득분위일수록 소득확장기가 길고, 저소득분위일수록 소득수축기가 길게 나타난다(시장선택효과).
- 시장선택이란 생산성이 높을수록 고소득직종에서 더 오래 머물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경제적으로 도태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시장선택은 단기소득의 불균등도보다 장기소득의 불균등도가 더 커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 생애주기효과와 시장선택효과가 장기소득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이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생애주기효과가 시장선택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장기소득불균등도는 단기소득불균등도보다 작다.

사람들은 생애 동안 다양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획득한다. 직업, 직종, 직군에 따라, 또는 본인의 선택, 건강상태 등에 따라 소득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소득분배구조 또는 소득의 상대적 분배격차가 결정된다. 이를 소득불균등도(income inequality)라고 한다.

소득불균등도는 통상적으로 연간소득(단기)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소득자마다 생애 동안 소득의 흐름이나 규모(금액), 패턴 등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받는 소득의 총액인 생애소득의 불균등도는 단기(연간)소득의 불균등도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청년기에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다. 중년기에 이르면 경험·경력 등이 쌓이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40대~50대초에 이르러 생애 중 가장 평균소득이 높은 최고점에 도달한다. 장년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생산성이 하락하고 평균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후 은퇴자가 늘면서 노년기에는 다시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로 진입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런 분포적 특성에 주목하여 생애주기가설은 연령과 생애소득 곡선 사이에 역U자 형태의 관계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역U자의 관계성은 연령대별로 여러 사람들의 소득을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로 산출한 평균적인 소득경로를 일컫는다. 소득자 개별적으로는 평균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평균적인 경로와 유사한 생애소득경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애소득경로가 소득계층별 또는 소득분위별로 패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만약 생애소득경로의 패턴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런 차이가 생애소득의 불균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다만 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본 원고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주기가설에 초점을 맞춰 생애소득의 궤적(경로)이 소득분위별로 어떤 분포적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분배적 관점에서 그런 특징이 장·단기 소득불균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다만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가구소득 정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별 가구원수가 상이하고 가구주 연령을 대표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인 단위의 소득분배구조 분석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니계수의 의미와 생애소득불균등도

지니계수는 계층간 상대소득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또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의 상태를 보여주는 소득불균등지수 중 하나이

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포가 균등하게 배분된 상태,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하게 배분된 상태를 나타낸다.

지니계수를 포함하여 현존하는 모든 소득불균등지수는 소득분배 상태의 편중도, 즉 불균등한 정도를 측정해서 보여줄 뿐, 소득분배 상태가 평등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소득분배구조의 평등·불평등도는 투입(노력, 비용, 능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산출(소득)이 얼마나 잘 배분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투입을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기준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본 원고에서도 소득의 불균등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소득불균등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노력이나 능력, 교육수준, 건강, 운, 직업, 업종, 성별, 나이, 경험, 경력, 경기여건, 경제발전단계, 문맹률, 민족구성, 계급사회 여부 등이 대표적인 결정요인이다. 이 가운데 소득자들의 직업·직종, 업종 등은 연간소득의 소득불균등도 지표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특히 소득자별 연령 차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세대 간에 나이가 다른 것은 차별적인 요소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령 차이가 소득분포를 불균등하게 만든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분석은 연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분석과 1년 이상의 장기소득에 대한 장기분석으로

나뉜다. 장기분석은 다시 여러 해의 소득을 합산한 장기소득 또는 생애 전체에 걸쳐 누적된 생애소득에 대한 불균등도 분석으로 나뉜다.

단기분석은 주로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와 연 1회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 등 소득불균등도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 간 소득분배상태를 비교할 때도 연간소득 지니계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장기분석은 주로 동일한 조사대상 가구를 오랜 기간 반복하여 조사하는 패널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생애소득의 분배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을 대상으로 구축된 장기패널자료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자료가 없다. 미국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현실에서는 장기패널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생애소득의 불균등도를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설령 생애를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40~50년 이상 축적된 패널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오류나 편의(bias) 없이 생애소득불균등도를 제대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표본가구 자체가 소멸하거나 이사, 해외이민, 응답거부, 조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대다수의 표본가구가 표본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애소득 분배구조를 추정할 수 있

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가? 다행히 간접적·우회적으로 생애소득분포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고소득자들은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고소득자로 잔류하는 비율이 높고, 저소득자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도 저소득자로 잔류하는 비율이 높다. 학력, 경력, 경력, 전문자격증, 성별, 연령, 건강상태, 정규직 여부 등과 같은 소득결정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거나 반영구적인 경우가 많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소득순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소득자들도 있다. 다만 소득자마다 지속성이 강한 소득결정요인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기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순위는 평균적으로 직전기간의 소득순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성명재·김종면(2004)과 성명재(2019)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 소득분위수(즉, 소득백분위수)별로 다음기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소득순위가 직전기간에 실현되었던 소득(백분위)등수와 평균적으로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서 각 연령그룹별로 같은 소득백분위수의 소득값을 연결하여 간접적으로 소득분위별로 생애(실질)소득의 궤적(경로)을 추정하였다. 특히 성명재(2005)는, 각 연령그룹별로 전년도의 소득등수가 p-백분위수였던 소득자가 다음 해에 같은 연령그룹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순위의 평균값이 전년도의 p-백분위수와 동일하다는 명제(가설)를 설정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이 가설



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장기 패널 자료가 없더라도, 성명재·김종면(2004)과 성명재(2019)의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생애소득 궤적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득불균등도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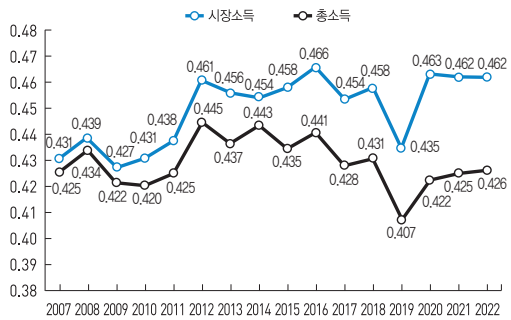
[그림 VI-1]은 2007~2022년 동안 우리나라 가구의 시장소득과 총소득 지니계수를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시장소득은 일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기업 등에 제공하고 급여, 임대료, 사업소득 등의 형태로 획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노동과 자본 등을 생산요소라고 한다. 시장소득은 (생산요소)시장에서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획득하는 소득으로, (생산)요소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총소득은 시장소득에 사인(私人) 간에 주고 받은 현금 이전액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반 가계에 지급하는 현금이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칭한다. 앞의 것은 민간이전소득, 뒤의 것은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그림 VI-15]에서 보듯이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1에서 2012년 0.461로 상승하면서 2000년대 후반에 소득분배격차가 조금 확대되었다. 이후 2019년에 0.435로 잠시 하락한 적이 있지만, 2010년대를 통틀어 시장소득의 지니

계수는 0.460 부근에서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2022년 현재 지니계수는 0.462으로 이전 수준과 비슷하다.

총소득 지니계수는 2007년 0.425에서 2012년 0.445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완만하게 조금씩 하락하였다. 2022년에는 0.426로 낮아지면서 2007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2000년대말~2010년대초에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최근까지 0.46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는 데 비해, 총소득 지니계수는 201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림 VI-15] 가구소득 지니계수, 2007-2022



주: 1)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5차년도)」, 원자료, 2023;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베타버전)」, 원자료, 2024.

[그림 VI-15]에서 보듯이 시장소득 지니계수보다 총소득 지니계수의 값이 항상 작다. 지니계수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상대소득분배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을 통해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그림 VI-15]에서 보

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장소득과 총소득 지니계수 사이의 간극의 크기(거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 소득분배구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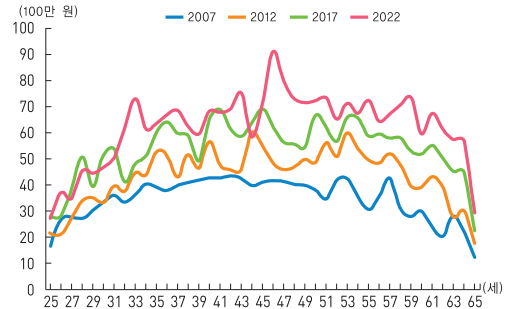
[그림 VI-16]는 각 연도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25세에서 65세에 이르는 총 41개 연령별 자료로 구분(분할)하고, 각 연령의 가구소득 평균값을 연도별로 연결한 연령-소득 결합곡선이다. 같은 시기에 조사된 전체 표본집단을 연령별로 재분류하여 그린 곡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애소득경로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사람들마다 살아온 시대적 환경과 경제발전단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생애소득경로와 특정 개인의 생애소득경로가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의 생애소득경로를 집합적으로 묶어보면 여러 사람들의 평균경로와 개인경로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들의 다양한 생애소득경로를 한데 묶어서 연령대별 소득분포로 엮어내고, 이들 분포의 가운데 부분을 관통하는 중심선을 이으면 생애소득곡선의 평균적인 경로를 얻을 수 있다. 그 중심에 연령대별 평균소득곡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심선을 나타내는 생애소득경로 평균곡선은 역U자 형태의 연령-소득곡

선의 형태로 도출되는데 [그림 VI-16] 역시 전체적으로는 역U자의 형태를 보인다.

부분적으로는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표본가구 수가 연도별로 4천 수백~8천 수백가구 정도인데, 이를 각 연령대로 분할하면 각 연령별로 표본가구 수는 평균 100~200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전체 모집단에서는 연령·소득곡선은 매끄러운 역U자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각 연령대별 소표본에서는 표본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연령·소득곡선이 매끄럽지 않고 불규칙하게 들쭉날쭉하게 보인다.

[그림 VI-16] 가구주 연령별 가구 평균소득, 2007-2022



주: 1)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5차년도)」, 원자료, 2023;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베타버전)」, 원자료, 2024.

연령별·소득백분위수별 소득경로의 특징

아래의 [그림 VI-17]은 각각 2009년, 2015년, 2022년 기간에 대해 소득백분위수별로 연령-소득의 결합분포를 나타내는 평균적인 생애소



특경로를 보여준다.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가 거의 동일하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위의 3개년도에 대해서만 분석결과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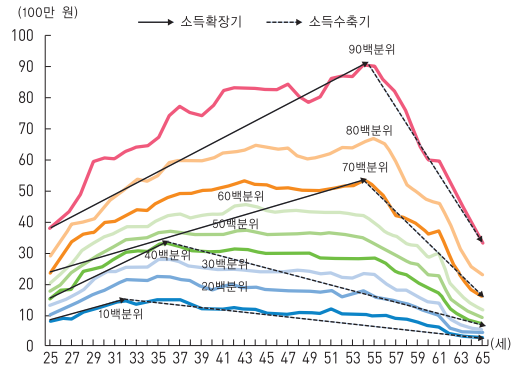
[그림 VI-16]이 연령별 평균소득값을 연결하여 연령-소득 곡선을 도출하였다면, [그림 VI-17]은 연령별 집단 내에서 소득백분위수별로 세분하여 평균적인 관점에서 등수별로 생애소득경로를 구별하여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득백분위수란 소득을 기준으로 등수를 분류하되, 절대등수가 아니라 100개의 백분위 등수로 환산한 상대등수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소득백분위수는 가장 소득값이 낮은 등수를 0백분위수, 가장 소득값이 높은 등수를 100백분위수라고 지칭한다. 예를 들어 30백분위수는 소득 하위 30% 소득자, 90백분위수는 소득 하위 90%(=상위 10%) 소득자의 소득백분위수를 나타낸다. 즉,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값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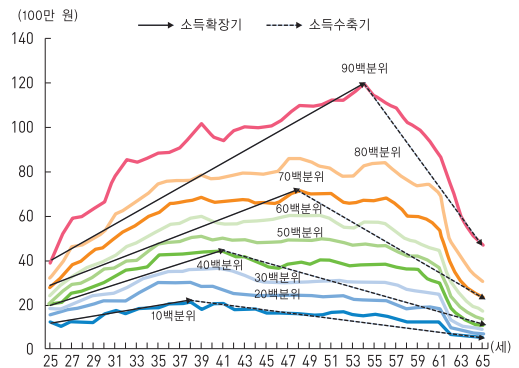
[그림 VI-17]에서는 10~90백분위의 범위 안에서 10백분위 단위로 모두 9개의 소득백분위수에 대해 평균적인 생애소득경로를 추정하였다. [그림 VI-16]과 마찬가지로 각 생애소득경로는 역U자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 역U자 곡선의 꼭지점의 위치는 백분위수별로 차이가 있다. 생애소득경로의 꼭지점이란, 같은 소득백분위수의 소득경로 중에서 절대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수준(즉, 정점소득)에 도달하였을 때의 소득값을 나타낸다.

[그림 VI-17] 소득백분위수별 평균 생애소득경로, 2009, 2015,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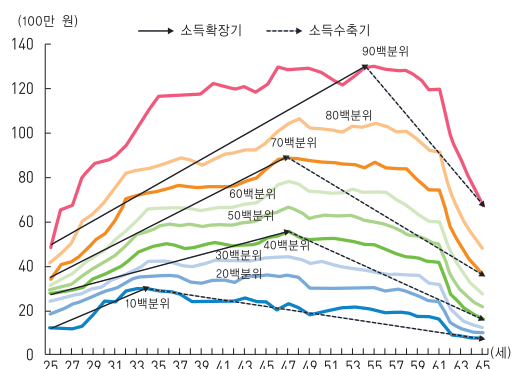
1) 2009년



2)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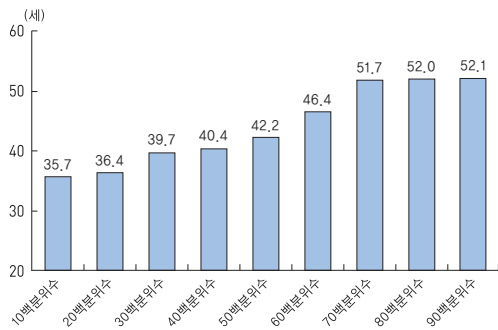
3) 2022년



주: 1)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5차년도)」, 원자료, 2023;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베타버전)」, 원자료, 2024.

[그림 VI-18]은 2007~2022년의 16개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백분위수별로 최고소득에 도달한 연령의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이다. 소득 10백분위수에서는 최고소득 연령이 평균 35.7세로 상당히 젊다. 40백분위수의 정점연령은 40.4세, 70백분위수 51.7세, 90백분위수 52.1세로 추정되었다. 소득백분위수가 높아질수록 최고소득 연령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VI-18] 소득백분위수별 최고소득 연령 평균, 2007-2022



주: 1)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5차년도)」, 원자료, 2023;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베타버전), 원자료, 2024.

소득백분위수별 생애소득경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소득백분위수별로 길이의 길고 짧은 차이가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다가 어떤 연령대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 다시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하나이다. 그리고 소득백분위수가 높아질수록 생애소득의 정점소득 연령이 상승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

통상적으로 20대 초·중반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정점소득 연령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은 생애 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이고, 정점소득 연령 이후의 기간은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이다. 성명재·김종면(2004, p.71-72)은 이를 각각 소득확장기와 소득수축기로 지칭하였다.

[그림 VI-17]에서 저소득층(10백분위수), 중소득층(40백분위수 또는 70백분위수), 고소득층(95백분위수)에 대해 화살표로 소득확장기와 소득수축기를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연도별로 각 소득백분위수별 정점소득 연령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분위에서 중소득분위, 그리고 고소득분위로 이행할수록 소득확장기가 길어지고 소득수축기가 짧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림 VI-17]의 2015년 사례이다. 10백분위수의 경우 정점소득 연령이 38세인데, 40, 70, 90백분위수에서는 각각 41세, 48세, 54세이다. 고소득분위로 갈수록 생애 중 소득이 증가하는 기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반대로 저소득층일수록 생애 중 소득이 증가하는 기간의 길이가 짧아지고, 소득이 하강(감소)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명재(2019, p.12-17)는 이런 현상을 두고 시장선택(market selection)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시장(market)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여 선택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더욱 중요하고 급여(소득)수준이 높은 시장에서 중용하여 더 오래 종사하도록 하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수요가 적어지면서 조기에 시장에서 쇠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시장선택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선수일수록 고액 연봉계약이 뒤따르고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오랫동안 높은 소득을 향유한다. 반대로 성적이 부진한 선수일수록 재계약을 할 때 연봉상승률이 낮으며, 극도로 성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조기에 은퇴하는 경향이 짙다. 그 결과 소득백분위수별로 소득확장기와 소득수축기의 길이가 비대칭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되면서 위의 [그림 VI-17]에서 볼 수 있는 생애소득경로들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임금격차가 소득불균등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시장선택이 작동하면, 생산성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소득을 더 오랜 기간 획득하고,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시장의 선택을 적게 받으면서 정점소득 연령이 빨리 찾아오고 이후 생애 동안 더 오랜기간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선택효과는 단기소득의 소득불균등도보다 장기소득의 소득불균등도를 더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소득불균등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예를 들어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균등도를 측정하면, 세대간 연령 차이가 소득분포를 불균등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예를 들어 가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애소득경로가 동일하여 생애소득의 불균등도가 0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경제주체에는 연령이 다른 여러 세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세대간 연령 차이로 인해 연령이 다른 구성원들의 연소득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연간소득)으로는 소득불균등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연령 차이에 의해 어떤 시점에 단기적으로 소득이 불균등하게 보이게 하는 현상을 두고 소득자간 생애주기 차이에 의한 불균등 효과라고 한다. 소득을 관찰하는 시계(視界), 즉 시간의 길이를 확장하면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불균등도는 상당 부분 중화된다. 만약 생애 전체로 확장하면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등 효과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것을 생애주기효과라고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단기와 장기소득의 분포 불균등도를 논함에 있어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시장선택효과와 생애주기효과가 그것이다. 앞의 것은 장기로 갈수록 소득불균등도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뒤의 것은 장기로 갈수록 소득불균등도를 낮추는 상반된 효과를 가진다. 그렇다면 두 가지 효과를 합쳤을 때 장기소득불균등도의 변화방향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은 ‘때에 따라 다르다’이다. 왜냐하면 꺾어보기 전에는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에 대해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이동성의 생애소득불균등 영향

[그림 VI-17]은 소득백분위수별로 각 연령대의 평균소득을 추정하고 같은 등수를 나타내는 소득점을 곡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따라서 각 생애소득경로 곡선은 생애동안 소득백분위수가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도출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연령 그룹 내에서 각 가구는 매년 소득순위가 바뀐다. 그러므로 순위변동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물론 매기간마다 소득순위가 완전히 새롭게 리셋되는 것 역시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직전년도의 소득순위를 중심으로 위·아래의 근처에서 순위가 조금씩 바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결과 다음기의 소득순위는 평균적으로 직전년도의 소득순위와 매우 가깝게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 VI-17]은 평균순위의 관점에서 각 소득백분위수별 평균적인 생애소득경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각 소득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생애소득경로는 소득등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동 범위 안에서 다른 등수의 경로로 매년 이동하는 것이다. 이동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에는 더 높은 등수의 소득경로로 뛰어오르거나 반대로 등수가 훨씬 낮은 소득경로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거리로 이동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제한적으로 소득순위가 바뀌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므로 소득등수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도 생애 전체를 통틀어 연령대별로 평균적인 등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득이동성이 발생하면 그만큼 시장선택효과와 강도가 약해진다. 시장선택효과와 절대크기가 작아질수록 장기소득불균등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그만큼 축소된다. 과연 현실에서 소득이동성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표 VI-4〉는 이동성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10개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예시적으로 2021~2022년 사이에 소득분위를 이동한 가구 또는 동일한 소득분위에 계속 머무는 가구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¹⁾. 첫번째 수직행은 2021년에 소속된 소득분위를 나타내며, 첫번째 수평행은 2022년에 소속된 소득분위를 나타낸다. 전체 가구를 10개의 소득분위로 분할(partition)하였기 때문에 각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중 평균 10%의 가구점유비율을 가진다.

예시적으로 2021년 현재 하위 20~30%의 소득순위를 나타내는 3분위(〈표 VI-4〉의 넷째 행)를 기준으로 2022년에 소속된 소득분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자. 2021년 전체 가구중 3분위에 소속된 가구비율은 총 10.06%p이다. 3분위를 나타내는 넷째 행의 마지막 열의 값이 그것이다. 10.06%p의 3분위 가구 중에서 0.72%p의 가구는 2022년에 소득최하위인 1분위로,

1) 〈표 VI-4〉의 분위간 이동행렬은 성명재(2018)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1.81%p는 2분위로 하방이동한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의 숫자는 소득백분위수에 변화 없이 계속 3분위에 머물고 있는 가구비율을 나타낸다. 3분위의 전체 가구(10.06%p) 중에서 4.20%p, 즉 대략 3분위 전체의 4/10를 조금 더 넘는 가구가 소득등수의 변동 없이 사실상 제자리에 있음을 나타낸다. 1.90%p는 소득분위가 한 단계 높아진 4분위, 0.17%p는 4단계 높아진 7분위, 마지막으로 0.08%p는 최고소득층인 10분위로 이동한 것을 나타낸다. 나머지 분위도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분위간 이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

〈표 VI-4〉 소득이동성: 소득분위 이동표, 2021-2022

		2022										소계
2021	202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4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6.44	1.97	0.51	0.30	0.21	0.28	0.15	0.08	0.03	0.02	9.98	
2분위	1.85	4.65	1.88	0.65	0.36	0.28	0.14	0.07	0.05	0.02	9.95	
3분위	0.72	1.81	4.20	1.90	0.81	0.26	0.17	0.07	0.04	0.08	10.06	
4분위	0.33	0.69	1.89	3.97	1.65	0.78	0.46	0.16	0.12	0.02	10.07	
5분위	0.17	0.43	0.78	1.75	3.66	1.91	0.69	0.29	0.29	0.16	10.13	
6분위	0.19	0.22	0.33	0.57	1.90	3.52	1.76	1.08	0.40	0.12	10.08	
7분위	0.14	0.11	0.24	0.34	0.67	1.77	3.65	1.98	0.82	0.30	10.03	
8분위	0.12	0.06	0.04	0.31	0.34	0.68	1.78	3.93	2.13	0.61	10.00	
9분위	0.03	0.03	0.07	0.11	0.28	0.42	0.77	1.64	4.57	1.98	9.90	
10분위	0.01	0.04	0.06	0.11	0.10	0.09	0.42	0.70	1.56	6.70	9.79	
소계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9.99	10.00	10.00	100.00	

주: 1) 각 통계치는 해당 기간 전체 가구 중 소득분위를 이동한 가구의 비율임. 표 대각선에 위치한 수치는 해당 기간 동일 분위에 잔류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5차년도)」, 원자료, 2023;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베타버전)」, 원자료, 2024.

〈표 VI-4〉는 너무 숫자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 가구가 소득분위를 이동하였는지 또는 잔류

하였는지를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표 VI-5〉는 소득분위의 변동없이 그대로 잔류한 경우와, 소득분위를 이동한 가구비율을 묶어서 간단하게 보여준다. 〈표 VI-5〉의 둘째 열은 각 소득분위별로 분위 이동이 없는 가구비율을 나타낸다. 셋째와 넷째 열은 소득분위를 이동한 가구비율을 나타낸다.

〈표 VI-5〉 소득이동성: 동일 분위 잔류 및 분위 이동 가구 비율, 2021-2022

	2022	2021	
	동일 분위 잔류	분위 이동	2개 분위 이상 이동
1분위	64.4	35.6	15.8
2분위	46.5	53.5	15.7
3분위	42.0	58.0	21.5
4분위	39.7	60.3	25.6
5분위	36.6	63.4	28.1
6분위	35.2	64.8	29.1
7분위	36.5	63.5	26.2
8분위	39.3	60.7	21.6
9분위	45.7	54.3	17.1
10분위	67.0	33.0	15.3
평균	45.3	54.7	21.6

주: 1) 1열은 2021년에 각 가구가 소속된 소득분위를, 2열은 2022년의 소득분위가 2021년과 동일한 분위에 잔류한 가구의 비율을, 3열은 2021년의 소득분위와 다른 소득분위로 2022년에 이동한 가구의 비율을 나타냄. 4열은 2022년에 소득분위를 이동하되, 2021년의 분위에서 2개 분위 이상 먼 거리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을 나타냄.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5차년도)」, 원자료, 2023;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베타버전)」, 원자료, 2024.

2021년에 최하위 소득분위였던 1분위 가구 중 64.4%는 계속 1분위에 머물고 나머지 35.6%의 가구는 더 높은 분위로 이동하였다. 특히 2개 분위 이상 원거리로 이동한 가구는 15.8%에 이

다. 반대로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에는 분위 이동을 하지 않고 잔류한 가구가 67.0%, 아래분위로 이동한 가구는 33.0%, 특히 2개 분위 이상 분위가 하락한 가구도 15.3%에 이른다²⁾. 2~9분위의 경우에는 분위이동을 하지 않은 가구가 대략 40% 수준, 다른 분위로 이동한 가구는 60% 내외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본 전체로는 본래 소속되었던 분위에서 2개 분위 이상 원거리로 이동한 가구도 평균 20%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생애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어떤 시점에서 연령이 다른 경우에는 연령 차이로 인해 소득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데 장기 또는 생애소득으로 기간을 확장하면 연령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격차 부분이 완화·해소되기 때문에 단기소득의 경우보다 장기·생애소득의 불균등도가 작아진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가구소득 순위는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존재한다. 소득이동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순위가 섞이면서 각 가구의 장

기소득이 전체 평균값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연령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장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처럼, 이동성 역시 [그림 VI-17]에서 관측한 시장선택효과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동성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런 효과는 더욱 커진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의 불균등도의 대소관계는 생애주기효과와 시장선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변화방향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효과가 시장선택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장기소득불균등도가 단기불균등도보다 작게 추정되었다. 그 이면에는 소득이동성으로 인해 시장선택효과가 약화된 것도 한 몫을 담당하지 않았나라고 추정된다.

장기소득불균등도

[그림 VI-19]는 2007~2022년의 연간소득 지니계수와 5년치 할인소득을 합산한 장기소득의 지니계수를 추정한 결과를 함께 보여준다. 본 원고에서 장기소득은 직전 4개년도와 당해연도의 할인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시점마다 물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당 명목소득 증가율로 각 연도의 소득을 할인하여 할인소득을 산출하고, 5개년도 할인소득을 합산한 장기소득을 기준으로 장기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 장기 지니계수는 5개년치 할인소득을

2) 소득분포의 양 끝단에 있는 1분위와 10분위의 경우에는 2~9분위에 비해 분위기를 이동하는 가구비율이 상당히 낮다. 언뜻 보면 양 끝단의 두 분위의 이동성이 매우 낮은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분위와 10분위에서도 각각 아래쪽과 위쪽으로 소득이 크게 변화하는 가구비율이 작지 않다. 1분위에서 소득이 매우 크게 감소하거나, 10분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소득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즉, 분위의 벽을 뛰어넘지 않았을 뿐, 이들 분위에서도 실질적인 소득이동성(또는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드물지 않다. 1분위의 소득 하한(최소값)이 0이고, 10분위의 소득 상한(최대값)이 (+) 무한대이기 때문에 소득변동이 매우 크게 발생하더라도 통계적으로는 계속 1분위 또는 10분위에 잔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포의 양쪽 끝에 위치해있는 1분위와 10분위에서는 착시현상으로 인해 분위 이동 비율이 작은 것처럼 관측되지만, 실질적인 소득이동성(변동성)은 작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합산하기 때문에 최초의 장기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부터 추정 가능하였다.

[그림 VI-19]에서 보듯이 연간소득 지니계수는 최소 0.407(2019년)에서 최대 0.445(2012년)로 추정되고, 장기소득 지니계수는 최소 0.392(2011년)에서 최대 0.404(2016년)로 추정되었다. 장기소득의 지니계수는 연간소득의 경우보다 절대수준이 대략 1/10 정도 작다. 변화의 진폭(최대값-최소값)도 0.012지니p(연간소득 지니계수의 진폭은 0.037지니p)로 작다.

장기소득 지니계수가 연간소득 지니계수보다 작은 이유는, 시장선택효과보다 생애주기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연령이나 소득순위 변동에 의한 상대소득격차의 축소효과가 시장선택에 의한 격차 확대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장기소득을 측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는데 만약 5년보다 더 긴 기간을 대상으로 초장기소득

또는 생애소득의 지니계수를 측정하였다면 지니계수 값이 조금 더 작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시장선택효과에 따라 나타나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구별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었다면 연간소득보다 장기소득의 불균등도가 더 커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생애주기효과와 소득이동성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맺음말

흔히 소득불균등도라고 하면 1년 동안의 경제 활동 결과로 얻게 된 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소득불균등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며, 주로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소득분포를 불균등하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면 단연코 세대간 연령 차이로 귀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생산성 차이에 따라 생애동안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간극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누적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현상도 있다. 앞의 것을 생애주기효과라고 하는데, 장기로 갈수록 소득격차를 줄이는 기능이 있다. 뒤의 것은 시장선택효과라고 하는데, 반대로 장기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VI-19] 장단기 지니계수(총소득 기준), 2007-2022



주: 1) 장기소득 지니계수는 연평균 명목총소득 증가율로 할인한 할인소득을 최근 5개년간 합산한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임.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5차년도)」, 원자료, 2023;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베타버전)」, 원자료, 2024.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생애주기효과가 시장선택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장기소득 지니계수가 단기소득 지니계수보다 작다. 특히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가구마다 소득백분위수가 변화하여 다른 소득계층(분위)로 이동하는 가구의 비율이 평균 54.7%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 이동성이 높을수록 시장선택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에 장기소득분포는 단기의 경우보다 균등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동성이 장기

소득불균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이동성 효과를 숫자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소득이동성이 높아질수록 장기적으로 소득불균등도가 축소·완화되기 때문에 소득분배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이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